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소통으로써의 Safe zone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최운영

소통으로써의 Safe zone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영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최운영

인 준 서

최윤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본인의 석사학위 청구전의 작품 Safe zone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변질된 인간애와 가정의 의미를 되찾고자 새롭게 창조한 공간을 표현하게 된 동기와 내제된 의미를 연구 분석 한다.

역사적으로 예술가의 작품 안에는 작가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가치관이 투영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작가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작가의 개성적인 작품을 통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 역시 현대 사회가 가진 문제를 바라보고 통찰하며 갖게 된 문제의식과 의문점에서 시작 되었다.

현대인들은 반복되는 삶의 프레임 안에 갇힌 채 주체성을 잃고 소외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가정의 해체와 그로 인한 지나친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타인과의 감성적 교류에 서툰 경향을 보인다. 즉 오늘날 사회는 구성원의 최소 단위인 개인들이 각자의 삶에 속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무관심한 감정의 무중력 상태에 기인한 소통 단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폐들은 가정의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인들의 심리적 미성숙함은 가정의 형태와 의미를 급격히 바꾸고 있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느슨해졌고 깨어지지 않을 듯 했던 핵가족이 분해되고 있다. 즉, 현대 사회는 심각한 병폐를 갖고 있다.

본인은 이를 치유하기 위해 휴머니티의 회복이 필요하고, 출발점은 가족애의 회복에 있다고 본다. 가정에서 교육되는 가치관과 타인에 대한 공감 등은 성인이 되어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소통

능력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위의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가정의 본질적 의미를 보존하고 있는 이상향 Safe zone을 제시한다. Safe zone은 동화적 느낌의 초현실주의 회화로 보이지만 인간애의 회복을 외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집에 담긴 다양한 기존의 통념들과 달리, 현대의 집을 이기적이고 위태로운 곳으로 재해석 했다. 이 집들은 안락한 유토피아 Safe zone으로 회귀하려 한다. Safe zone은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점에 서 있는 중간적 공간으로 현대 가정의 도피처인 셈이다. 현실 속의 위태로운 집들은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가족의 기억을 함께 껴안고 안락한 자연속의 Safe zone으로 탈출 한다. 하지만 여전히 나뭇가지에 걸려, 혹은 파도에 쓸려 위태롭게 지탱되는 Safe zone의 모습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짓누르는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다.

작품 속에서 보여 지는 집은 뿌리가 뽑힌 채 표류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릴 적 환상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모험기에 관심이 많았던 본인의 무의식의 반영이며 동화적인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유화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채화처럼 캔버스의 울의 느낌을 살려내는 기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세기 같은 유체를 묘사해내어, 재료와 작품이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주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된 집들의 모습은 물리적 상태의 재현이나 만화적 상상력 만으로만 포장된 초현실주의 회화가 아닌 심리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현실의 알레고리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주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	5
1. 현대 사회와 소통	5
2. 가족의 의미와 소통	7
3. 타인과의 소통	9
III. 작품의 내용적 분석	10
1. 집 - Safe zone	12
2. 부유하는 이미지	17
3. 동화적 배경표현	22
IV. 작품설명	29
V. 결론	50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작품 과정.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1
- [작품 2, 3] 작품 과정.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1
- [작품 4, 5] 작품 과정.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1
- [작품 6] 작품 과정.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1
- [작품 7] I'm a little boy you're a little girl once upon a time.
72.7cm x 90.9cm. Oil on canvas, 2010
- [작품 7-1] 작품의 집 그림 부분 확대
- [작품 8] Safe zone.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0
- [작품 9] Safe zone.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1
- [작품 10] Safe zone. 72.7 x 90.9. Oil on canvas. 2010
- [작품 10-1] 부유하는 집 부분
- [작품 11] Safe zone. 112.1cm x 193.9cm. Oil on canvas. 2011
- [작품 12] Safe zone. 112.1cm x 193.9cm. Oil on canvas. 2011
- [작품 13] Safe zone. 35cm x 35cm. Oil on canvas. 2012
- [작품 14] Safe zone. 35cm x 35cm. Oil on canvas. 2011
- [작품 15] Safe sone. 162.2cm x 130.3cm. Oil on canvas. 2012
- [작품 16] Safe zone. 116.8 x 80.3cm. Oil on canvas. 2011
- [작품 17, 18] 전시장면

도 판 목 차

- [참고 도판 1] 루이스 부르주아(Luise Bourgeois).
집-여자(Femme Masion). Oil and ink on linen
91.4 x 35.6cm. 1946~1947.
- [참고 도판 2] 고든 마타 클라크 (Gordon Matta Clark).
쫓개짐. 실버 다이 블리치 프린트(시바크롬).
76.2 x 101.6cm. 작가 재단 소장. 1974.
- [참고 도판 3] 무중력 상태의 우주선 모습과 영화 인셉션 스틸컷
- [참고 도판 4] Little namo 애니메이션 캡처
- [참고 도판 5] 블라드미르 쿠쉬 (Vladimir Kush). Metamorphosis II.
Oil on canvas. 64 x 84 cm. 2001.

I. 서론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의 파편 안에 갇혀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달리 정형화된 건축물들이 즐비한 도시 안에서 사회의 제도에 길들여진 채 삭막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정보화와 대중매체의 발달이 인간에게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열었고 사고와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여전히 소통의 부재로 인한 단절과 고립을 겪고 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집이란 공간의 의미 또한 빠르게 변해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집은 가족 구성원의 생활공간으로서 보호받고 휴식을 얻는 공간이었다. 세계인권선언의 16조 3항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한다. 심리학적 으로 집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하여 안락함이 내재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집의 다양한 이미지들 속에서도 치유와 따스한 포용과 같은 공통된 느낌을 발견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와 이기심들은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가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유대감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기계적인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부모님의 맞벌이와 아이들의 방과 후 학원 수업 등 개개인에 맞게 짜여진 스케줄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이혼률과 고독사의 증가, 핵가족의 분열 등 가정의 형태의 급변과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목도되고 있고, 따스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질보다, 이기심과 편법을 가르치는 가정의 모습들은 분명 가정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인간들의 삶을 둘러싼 주위의 환경이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뀌었다. 따

라서 인간의 감성도 변화하는 시점에서 서로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감정의 균열이 나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른다. 여기서 소통의 부재에 대한 사회의 이목과 본인의 안타까운 감정은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간단히 그것이 스스로 치유되거나 피그말리온효과(Pygmalion effect)¹⁾에 맡겨 버릴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삶의 모습은 계속 바뀐다고 생각할 때 감성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복되는 삶과 감성의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할 본인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현대인을 객관화하여 보는 것에서부터 작품의 동기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사회와 현대인들의 뿌리 깊은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정의 회복, 나아가서 인간애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의 회복은 무관심과 이기심에 젖은 현대인들에게 따스한 감정과 소통을 돌려 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본인은 가정애의 회복이 휴머니티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위의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가정의 본질적 의미를 보존하고 있는 이상향 Safe zone을 제시한다. 집에 담긴 다양한 기존의 통념들과 달리, 집이란 공간을 현대인들의 개인의식이 팽배한 이기적이고 위태로운 곳으로 재해석 했다. 현실속의 병든 집들은 안락한 유토피아 Safe zone으로 회귀하려 한다. Safe zone은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점에 서 있는 중간적 공간으로 현대 가정의 도피처인 셈이다. 현실 속의 위태로운 집들은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가족의 기억을 함께 꺼안고 안락한 자연속의 Safe zone으로 탈출 한다. 하지만 여전히 나뭇가지에 걸려, 혹은 파도에 쓸려 위태롭게 지탱 되는 Safe zone의 모습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짓누르는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

1) 피그말리온효과(Pygmalion effect) :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을 집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의 사랑에 감동한 여신 아프로디테는 여인상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면을 드러낸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 서론에 이어 II 장 주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서 1. 현대 사회와 소통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SNS등 발전된 기기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익명적 현대인의 소통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2. 가족의 의미와 소통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변화된 가정의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3. 타인과의 소통에서는 현대인의 소통의 부재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여 본다.

II 장에서 현대사회의 소통을 관점으로 우리가 속한 현실을 고찰 하고 의식을 확장 하고자 했다면 III 장 작품의 내용적 분석에서의 1. 집 - Safe zone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변화된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안락한 장소로 의미 부여된 유토피아적 존재인 Safe zone에 등장하는 집의 이미지를 그것을 소재로 한 고든 마타 클라크(Gordon Matta Clark)와 루이스 부르주아(Luise Bourgeois)의 작품을 통해 유년시절이 담긴 집의 의미를 중심으로 언급하겠다. 그리고 2. 표류하는 이미지에서는 어릴 적 본인이 즐겨보았던 모험을 떠나는 표류기 애니메이션을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표류하는 집의 이미지가 현대인들의 주체성의 상실을 작품으로 나타내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스틸 컷을 통해 분석하여 설명하겠다. 또한, 3. 동화적 배경표현에서는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자신을 은유사실주의 화가라고 일컫는 블라드미르 쿠쉬(Vladomir Kush)의 작품을 통해 본인의 작품 속 배경에 나타나는 환상적분위기와 비교하여 공간표현에 대한 제작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IV 장 작품 설명에 있어서는 작업의 의미와 작업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언급하고 각각의 작업에 대해 설명하겠다.

마지막으로 V 장 결론에서는 현대사회에서 현대인과 자아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본인의 작업과 어떻게 연결되어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앞글을

요약하고, Safe zone으로 요약 되는 본인의 작업 과정에 대한 생각을 언급한다.

II. 주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

1. 현대사회와 소통

현대 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당연한 것은 아니다. 관계형성에 있어 소통은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소통이란 말은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공동 또는 공통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Cummunis를 어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의 본래의 의미를 따져 본다면,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어떠한 공통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²⁾ 예를 들어 짧은 인사만을 나누던 서먹한 관계에서 함께 식사도 하는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서로 간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이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W.G.Scott은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1)정서적 기능, 2) 동기부여기능, 3)정보교환기능, 4)통제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³⁾ 하지만 현대사회의 소통단절은 정서적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즉, 구성원들의 감정표현과 사회적 욕구충족 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존중을 토대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사소한 감정 교류 수준을 넘어 현대 사회의 구성원 간 소통 창구로서의 의미 또한 지닌다. 최근 정치인들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청문회나 토론을 생중계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해석하기 위한 통로를 구축 한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2) 김정리,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론』, 학문사, 2003, p.254

3) 같은책, p.257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사회적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활발한 소통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투표율은 현저히 낮고, 집단따돌림이나 직장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 등 소통의 단절로 인한 개인의 소외 문제 또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정보화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새로운 소통 매체들은 편리함과 신속함의 이점을 갖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소통에 제약을 가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전화번호는 외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몇 분 안에 오지 않는 답장에는 조급해짐을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그러한 부작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 활발하게 인간관계를 형성하지만, 언제든지 익명으로 가볍게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관계를 가볍게 하고 있고 직접 만나 서로의 의견과 감성을 교류 할 시간은 오히려 줄고 있다. 현대인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인간애를 갈구하며 스스로가 만든 소외감에 갇혀 있는 듯 보인다.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처럼 현대인들은 남들과 비슷한 생활, 즉 평범함을 좋은 가치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다르게 말해 개성 없는 획일화 된 개인의 삶이 보편적이며 같은 사회 속의 구성원들의 삶이 쉽게 설명 된다는 것이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고도로 구조화, 관료화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수직적인 대인 관계를 맺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의 양식을 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 대중 매체에서 전파 되는 메시지에 길들여진 수동적 태도를 보이며 급기야 자아를 상실한다.

우리에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선택적 지각' (selective perception)을 하는 것이다. 선택적 지각이란,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생각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쪽의 증거와 현상

에 치중하는 한편, 그 신념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고 저평가의 태도를 취하는 정보의 취사선택방식이다.⁴⁾ 이와 같이 자기중심에서 옳다고 믿는 것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지각현상은 4~7세 사이의 아동기의 특성으로 어린 아이 때 한시적으로 나타는 것이다. 스위스 발달 심리학자 장 피아제(Jean Wiliam Fritz Piaget)⁵⁾에 따르면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게 된다면 자기와 대상 또는 자기와 타인의 구분은 명확히 하나, 자기와 다른 것을 자기에게로 동일화 하거나 동일시하려는 것에서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게 된다고 하였다.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나약함에서 벗어나 내성을 키우면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신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현대인의 모습에 주목하고 서로간의 배척이 낳은 외로운 소통에 대해 올바른 대안을 찾아 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가정의 의미와 소통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대가족 형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온 가족 형태였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산업화를 거치며 핵가족으로 빠르게 재편 되었고,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1인 자녀를 두는 가정이 늘었으며 이혼율 또한 급증하는 등 가정은 점점 파편화 되어 가

4) 황순영, 『마케팅의 비밀』, 서울 : 법문사, 2004, pp.166~167.

5) 장 피아제 (Jean Wiliam Fritz Piaget (1896~1980) : 철학자. 자연과학자이며 발달 심리학자. 어린이의 학습에 대한 연구인 인지발달이론과 발생적 인식론으로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아동의 언어와 사고』, 『발생적 인식론 서설』 등이 있다.

고 있다.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 상호 이해를 학습 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있고 일부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또한 자녀의 자율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은 떨어지고 자녀에 대한 인성 교육의 질적 하락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주의의 팽배는 예고된 결과물인 셈이다.

변질된 가정의 의미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가졌던 본질적인 가치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접촉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상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구성원 간의 경험은 사회적 관계의 첫 경험이며, 다른 사회적 관계로 확대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⁶⁾ 인간은 가정에서 행동 양식과 인격을 형성해 나가며, 가정에서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사랑을 베푼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배운다.

인간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 혹은 인간의 자아 속에는 사회적 측면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관련성으로 인해 인간의 사회성은 자아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의 자아는 사회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자아의 발달이 곧 사회화이며, 그 결과가 인성이다. 인성을 인지의 발달로 이해하는 피아제의 학습 이론이나 생리의 발달로 이해하는 에릭슨의 심리 발달이론, 그리고 도덕심의 발달로 이해하는 콜버그의 이론등과 달리 사회학에서는 인성을 사회적 자아의 성숙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⁷⁾

성장과정 속에서 가정에서 형성된 자의식은 한 인간의 근간이 된다. 필자 역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작품을 진행하게 된 문제의식과 세계관을 만드

6) 정은영·신혜원, 『부모와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세대의 부부 적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15(3), (2009), pp.331~353.

7) 교양교재 편찬위원회, 『선과자아』,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p.2.

는 뿌리가 되었다. 어린 시절 기억속의 가정의 의미를 집이라는 구체화된 이미지에 부여하고 작품에 등장시켰다. 현대인들의 메마른 감정과 가정의 쇠퇴된 의미를 복원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표현이 필요하다. 즉, 우리는 타인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켜 인간애를 회복해야 한다.

3. 타인과의 소통

타자에 대한 정의는 다양 하지만 본 논문에서 본인이 사용한 ‘타자’의 정의는 내가 아닌 타인(他人)을 지칭한다.

타자란 개별적 주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비주류의 문화현상과 같은 사회적 현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내가 아닌, 이질적, 낯선 것, 다른 것, 그리고 무의식이나 욕망과 같은 낯설고 이질적인 심리적 현상을 지칭하기도 하고, 금기나 터부와 같은 금기와 관련된 사회적 관습을 지칭하기도 한다.⁸⁾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라는 주체의 관점에서 동양을 타자로 두고 있다.

인간은 나를 중심에 두고 타인을 정복하려는 욕구가 있다. 나와 다른 ‘차이’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불신이 존재한다. 내 자신과 같이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려는 의식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러한 타자성은 본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통찰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의 존재함은 남에게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Jungen Habermas, 1929~)의 ‘의사소통 행위이론

8) 고충환,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 랜덤하우스중앙, 2003, p.73.

에 따르면 의사소통적 행위란 서로 대화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화를 통해 발화자와 청취자가 상호이해라는 인격적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 올바른 의사소통임을 밝히고 있다.⁹⁾ 의사소통은 나와 내가 아닌 상대와의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통은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감성적 교류를 통해서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는 통합이나 단절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재조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소통 하며 함께 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스스로에 대한 비판과 나를 바라보기가 선행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내가 아닌 타인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갖고 좀 더 이해하고 관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통의 단절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화두되어 지며, 본인의 속에도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본인 작품의 주제의식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 속에서 나오는 소통에 있다.

9) 계명대학교 철학연구소, 이진우 엮음,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6), p.60.

Ⅲ. 작품의 내용적 분석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자 한다. 하지만 정형화된 건축물들이 즐비한 도시 안에서 짧은 인사말로 서먹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제도에 길들여진 모습들로부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삭막한 모습의 단편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화와 대중매체의 발달이 인간에게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열었고 사고와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여전히 소통의 부재로 인한 단절과 고립을 겪고 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집이란 공간의 의미 또한 빠르게 변해 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집은 가족 구성원의 생활공간으로써 보호받고 휴식을 얻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의 위기가 초래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Safe zone 작업에서는 기존의 아늑하고 따스한 가정의 통념을 벗어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을 이기주의가 팽배한 공간으로 묘사한다. 위태로운 공간으로 재구성된 집의 표현은 안락한 이미지의 기존 통념을 깨고, 현재의 가정이 처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사회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으로 인해 가정의 의미와 역할이 변화 했고 단혀진 개인의 마음은 소통의 단절로 이어졌다. 가정의 위기를 바라보게 된 계기부터 작품으로 표현한 방식까지 1)Safe zone, 2)표류하는 이미지, 3)동화적 배경표현의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 한다.

1. 집 - Safe zone

기계적 소통을 통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며 느낀 안타까운 감정을 가졌고, 이미 사회 현상으로 발현되고 있는 소통 부재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작품에 깔린 핵심적인 생각은 가족이 혈연으로 이어진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개인이 모인 집합체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안락하고 편안한 가족의 안식처인 가정의 의미를 ‘개인의식이 팽배한 이기적인 공간’으로 재창조 하였다.

가정은 집의 형상을 하고 자연의 도움을 받아 안락한 장소인 **Safe zone**을 형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Safe zone**은 현 사회 속 잃어버린 가정의 본질적 의미를 보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작품 속에서 도시 속의 천편일률적인 인공의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자리를 잃은 나무가 몸부림치며 있는 힘을 다해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찾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집들이 뿌리째 뽑혀 그 힘에 이끌려 올라 간 모습이 나타난다. 그 곳은 바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찾아낸 안락한 공간(Safe zone)이다.

이기적 인간관계로 감정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현대인들이 속한 가정의 모습은 사회문제의 축소판이다. 전통의 모습을 잃어버린 가정의 심리적 문제를 캔버스 화면에 구성하며 판타지적인 형태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자 한다. Safe zone은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옳은 방향을 찾아 가자는 의식을 담고 있다.

Safe zone에서 나무에 올라간 집의 모습은 새의 둥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도시의 가로수 위에 지어진 둥지는 새들의 안식처이지만 바람으로 인해 집을 받쳐주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느껴진다. 몇 해 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본 차창 밖 풍경 속에서 수많은 나무들 속에 안식

치라고 지어놓은 등지가 너무나도 아슬아슬하게 보였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과 같이 불안정하게 느껴졌고 이러한 느낌을 작품에 반영 했다.

[작품7-1]에서 왼쪽에서 보여 지는 집과 사람의 완벽하지 않은 형태는 행복했던 유년시절을 어렴풋이 기억해 내어 형상화하는 작업으로 다른 작품에 나타나는 집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개발 계획으로 사라지게 되는 집의 운명과 함께 사라질 추억들을 표현하고자 흐릿한 흔적만 남은 것으로 표현했다.

성장과정 속에 가정에서 형성된 자의식은 한 인간의 근간이 되기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작품을 진행하게 된 문제의식과 세계관을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 어린 시절 기억속의 가정의 의미를 집이라는 구체화된 이미지에 부여하고 작품에 등장시켰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출발한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¹⁰⁾ 또한 소아기는 정서적으로 매우 강렬한 시기이며 어린이들의 최초의 꿈은 흔히 정신의 기본구조를 상징적인 형태로 묘사하면서 그 개인의 장래운명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이 어느 시기보다 오래 기억되고 성인이 되어 생활함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작품 7-1]에서 오른쪽 집은 본인의 작품에서 많이 보여지게 되는 80년대

10)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았지만, 정신 현상을 성욕에 귀착시켜 설명하는 프로이트에 반대하였고, 아들리(A. Adler)의 사상을 받아들여 성격에는 내향형과 외향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도와 북아프리카 등지를 여행하면서 미개인의 생활을 관찰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층 심리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오랜 집단생활에 의해 심리에 침전된 “집단무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1) 야코비, . 『C.G. 융 심리학 해석』,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1992, p12

빨간 벽돌집 모습이다. 어머니와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진 집의 형태로 가정의 모습이다.



[작품 7-1] 작품의 집 그림 부분 확대

루이스 부르주아(Luise Bourgeois)의 작품 [참고 도판 1]<집-여자>에서 집은 대부분 그녀가 실제로 거주했던 집들로 기억의 공간이다. 집은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실질적 공간으로 평탄치 않았던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그녀에게 보호와 억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며 또한 이 공간을 사람들의 사이의 심리학적 역학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그녀는 일생동안 과거를 회상하며 어린 시절 집으로 돌아가 당시에 느꼈던 상처와 경험을 작품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녀의 영어 가정교사가 아버지의 애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에게 있어 작품은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자 치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말년에 이러한 상황을 무기력하게 관조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한다. 그에

반해 치유되지 않은 그녀의 유년시절의 기억은 훼손된 신체로 대변된다.



[참고 도판 1] 루이스 부르주아(Luise Bourgeois).

집-여자(Femme Masion). Oil and ink on linen .

91.4 x 35.6cm. 1946~1947.

‘집의 형상으로 작업을 하는 많은 작가들 중 고든마타클라크는 실존하는 집을 갖고 작업을 하는데, 이 작품은 철거가 임박한 건물을 반으로 쪼개기를 한 것이다. 집은 가족의 삶의 터전이며 유년시절의 기억들이 담긴 추억의 공간이라는 본인의 생각으로 미루어볼 때 작가의 이혼한 부모님과 쌍둥이에 대한 기억이 그의 “반으로 쪼개기”의 바탕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도판 2] 고든 마타 클라크 (Gordon Matta Clark). 쪼개집.

실버 다이 블리치 프린트(시바크롬).

76.2 x 101.6cm. 작가 재단 소장. 1974.

고든마타클라크의 작업을 통해 그동안 평면적인 작업에 국한 됐던 본인에게 입체적인 재구성을 통해 관객들에게 확실한 의미를 전달하려한 그의 강렬한 방식은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으며 더 나아가 그의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전위적인 행동들이 아티스트의 감성을 일깨워 준 작품이다.

집이라는 것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개인 혹은 가족이 가진 기억의 산물이라는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추억을 회상하는 통로가 되어 누군가는 본인과 같이 행복했던 가정의 모습과 더불어 유년시절의 추억을 더듬을 수 있을 것이다.

2. 부유하는 이미지

산업혁명이후 현저하게 달라진 삶의 모습에서 가정의 의미는 퇴색되고 사회 속 개인들은 이익 목적으로 한 관계를 추구하며 서로간의 감성의 교류에 무관심해져 가고 있다. 본인 또한 이득을 위해 쉽게 다가 왔다가 쉽게 잊혀지는 무관심에 상처 입은 경험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스스로가 만든 틀이며, 네트워크를 통해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부담 없는 소통을 즐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교류 없는 소통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개인은 단절된 사유를 하고 대중 안에 숨어 지낸다. 이러한 모습은 디지털시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익명의 소통을 즐기는 현대인들에게서 쉽게 발견 된다.

인터넷에서 개인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익명적 의사소통을 한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지만, 말과 행동에 책임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즉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예로 “악플”을 들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연예인이 가장 좋은 타겟이 된다.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못한 1차원적인 말은 타인에게 상처주기를 의도할 수 있어 자칫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텔레비전은 구조적으로 삶의 시간성 및 유한성에 대한 기억과 두려움을 은폐하고 해소해 주는 매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마도 현대인의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심리 상담자이며 호스피스는 바로 텔레비전일 것이다.¹²⁾

Tv를 비롯한 대중매체는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리적 방황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현대인들의 도피처이며 대중들의 사고를 획일

12) 오병남의 지음, 『미학으로 읽는 미술 미학강의 A에서 Q까지』, 월간미술, 2007, p.232

화 시키는 도구로 볼 수 있다.

영화배우나 탤런트 같이 대중매체를 통해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고독과 허탈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대중 앞에서 본인을 감추고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바꿔야 하는 괴리감과 작품에 몰두하면서 극중 인물에 너무 몰입하다가 현실과 구분 짓지 못하고 헤어 나오지 못하는 연예인들의 경험담을 기사로 접하게 된다. 이는 현대인들이 자아(自我)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감정을 무중력 상태[참고 도판 3]에 비유하고자 한다. [10-1] 작품에서 보여 지는 표류하는 집의 이미지는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주체성의 모습과 감정을 포함한 소통의 무게를 표상 한다. 표류는 물에 떠서 흘러가거나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는 말로 불안정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감정의 무중력이라는 말과 동일시하려는 것은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둥둥 떠오르는 집의 모습이 다시 말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현대사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좌표를 잃고 헤매는 현시대의 불완전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참고 도판 3] 무중력 상태의 우주선 모습과 영화 인셉션 스틸컷



[작품 1] Safe zone.53.0 x 45.5cm.

[작품 10-1] 작품의 부분 컷 Oil on canvas. 2011

또 이러한 집은 여행 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도피를 위해 여행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재충전과 치유를 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감정이 사라진 소통방식의 모습에 빗대어 집을 무중력 상태와 여행을 떠나는 모습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어린 시절 표류기에 관심이 많았던 본인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 공간 속 주인공이 되어 이를 헤쳐 나가는 상상을 하곤 한다. 이때 무의식 속에서 혼재되어 있던 이미지들이나 경험, 접했던 영상들을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공간을 구상한다.

<Safe zone>시리즈에 있어서 신비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고 꿈의 나라 여행과 같은 환상적인 영상이나 동화에 관심이 많았기에 즐겨보았던 [참고도판4] 리틀 네모¹³⁾를 보면 꿈속에서 어린 네모는 ‘잠의나라’로 가게 되는

데 그곳의 ‘꿈의왕’은 이 아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 심술궂은 플립의 꾀에 넘어간 네모는 실수로 끔찍한 ‘악몽의 왕을 풀어주게 되고 결국 그 악몽의 왕과의 정면대결을 펼치게 된다는 아름다운 영상이 담긴 애니메이션이다. 꿈의 나라로 모험을 떠나게 되는 장면에서 침대의 네 다리는 마치 생명체인 듯 필요해 의해 길어지고 주인공 네모를 태우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 부유하는 침대의 모습은 잠의 나라에서 실수로 ‘악몽의 왕’을 풀어준 네모가 친구들의 지원을 받으며 다시 잠의 나라로 떠나는 장면이다. 여기서 불안함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나는 모습은 본인의 [작품1]과 [작품10-1]에서 나타나는 나무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장소를 찾아올라 가는 것과 같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희망을 찾고자 하는 점이 유사하다.

본인이 표현하고자 한 회화적 공간은 보는 이의 상상 속에서 다른 차원과 장면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판타지적 공간이고 나무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늘로 쪽쪽 올라가는 장면을 연상시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현대인들의 무거운 마음에 위안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붓 터치는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표류하는 집의 방향성을 주어 동적인 느낌을 더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이 때 방향이 직선으로 한정되었는데 아직은 재료에 대한 연구의 미숙함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배경 표현은 아래 “3.동화적 배경표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3) 리틀네모 : 20세기 후반에 윈저 맥케이에 의한 고전만화에서 영감을 얻어 하타마 시미, 윌러엄T. 허즈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참고 도판 4] Little namo 애니메이션 캡처

3. 동화적 배경표현

나의 작품 속 배경은 이상과 현실의 ‘중간적 공간’으로 칭하려 한다. 역으로 본인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동화 속 판타지적 요소로 중간적 공간을 발견하는 것을 현실의 고뇌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해 본다. 관객의 상상을 통한 스토리텔링에 의해 나의 작품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구름과 눈 또는 파도와 구름 등 이중적 모습의 배경에서 꿈의 공간을 담아낸다. 그것은 현실의 두 세계를 한 배경에 중첩시켜 환상적인 분위기를 담아내는데 동화 일러스트에 관심이 많은 본인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초현실적 이미지인 듯하다.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환상의 세계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상상력과 무의식을 해방시킬 것을 주장한다.¹⁴⁾ 꿈과 현실의 모순된 상황을 절대적인 현실 또는 초현실적인 현실로 변형 시키는 것을 초현실주의의 지상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초현실주의는 사고와 이성 과 언어의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동시에 미학적, 윤리적 선입관 없이 즉각적으로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 과제였다. 순전한 무의식적 상태에서 자동기술법(Automatism)을 통해서 이를 성취하려 하였다.

이러한 자동기술법을 통한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이성을 배제한 채 꿈과 우연의 자유로운 전개가 가능해 진다. 본인의 작업에서도 우연의 자유로운 배경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동기술법의 무의식적 상태에서 진행되는 방법은 나타난다.

초현실주의는 꿈의 세계를 회복시키고 가시적 현실을 극복하려 한다. 단

14) 고충환,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 랜덤하우스중앙, 2006, p.17

순히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현실과 초현실의 접점을 시도하며,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세계를 확장¹⁵⁾하고자 하였던 인간이 지닌 의식 저편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예술사조이다.

[참고도판 5]의 자신을 은유사실주의 화가라고 일컫는 화가 블라디미르 쿠쉬의 작품들을 보면 에드벌룬 천을 구름으로 대체하는 등 공간 속에 표현된 동화적 이중적 초 현실 세계가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든다. 예술을 좋아하는 가족들 품에서 태어나게 되어 7세부터 미술 교육을 받으며 화가의 꿈을 키운 블라드미르 쿠쉬는 세잔느의 화법의 영향을 받아 사실적인 그림에 지루함을 느끼고 14세 어린 나이에 초현실주의 그림을 처음으로 그리게 된다. 자신의 그림은 숲 공원 근처에서 살며 자연을 몸으로 느낀 자신의 유년에 대한 회상이라 했다.

[작품8]에서 어릴 적부터 자연 속 전원생활을 꿈꾸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본인 또한 자연과 친화적인 구름과 눈, 파도와 구름의 중간적 공간에서 초현실적 꿈의 공간 모습을 담아낸다.



[참고 도판 5] 블라드미르 쿠쉬 (Vladimir Kush). Metamorphosis II.

15) 김용석, 『깊이와 넓이 4막 16장』, 휴머니스트, 2002,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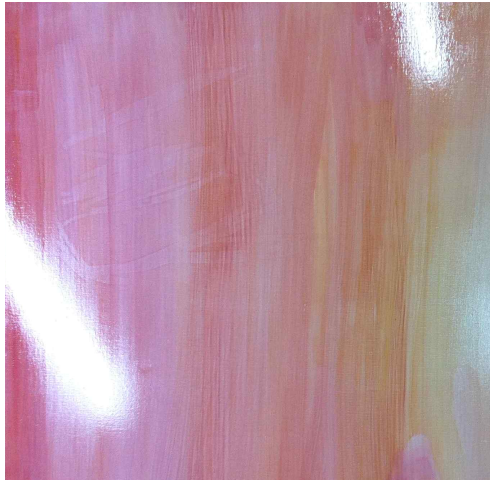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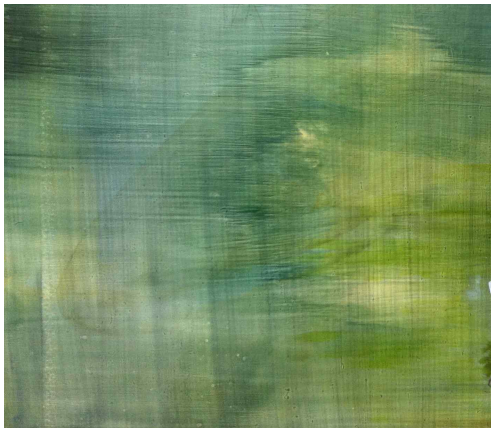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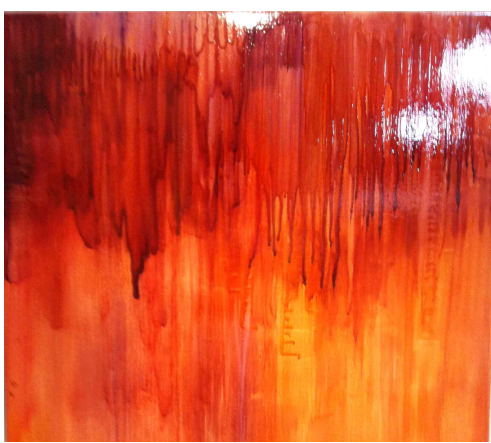
Oil on canvas. 64 x 84 cm. 2001.

[작품 8] Safe zone.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0

구름의 형상은 눈(雪)과 이중적 이미지를 띄고 있다. 구름은 공기 중의 수분이 엉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허공에 가볍게 떠있어 집을 받쳐줄 수 없다. 눈은 하얀 이미지와 ‘더러움을 씻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 눈 또한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로 몽롱한 이미지와 순수한 세계 속 불안정한 역할을 하여 디딜 곳 없는 현대인들의 불안정하게 지탱하려 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표현된다.

블리드미르 쿠쉬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동화책 속의 삽화 같으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은 환상의 세계로 초대되는 것 같다. 작품 속 배경에서 보여지는 현실과 이상의 중간적 공간은 초현실주의에서 볼 수 있는 환상의 세계를 통해 관객에게 또 다른 세계의 확장과 상상할 수 있는 여지는 본인이 본받고자 할 만하다. 때문에 배경을 표현함에 있어서 몽환적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름과 색 표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을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배경을 표현함에 있어 몽환적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인은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붓의 방향과 터치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방법을 택했다. 이것은 배경의 내용적 특징을 표현함에 있어 고안된 방법으로 전통적인 유화의 느낌이 아니라 수채화 같이 맑은 초벌 방법이다. 캔버스의 울이 비취지는 모습에서 마치 바람이 불어 재료와 작품이 하나가 되는 느낌은 받은 뒤부터 사용해 온 방법이다. 본인이 작품에서 기름의 농도변화를 주어 전달하려고 했던 공기의 흐름 표현과 바람의 세기를 다음의 도표로 설명해 보겠다.

	<p>송진가루 2 : 테라핀 8 비율. 광택이 있고 옅은 색감으로 색감이 겹치는 곳에서 기름이 부딪히며 생기는 붓터치는 공기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한 초벌 농도 이다.</p>
	<p>송진가루 : 2 테라핀 : 8 비율을 두 번 덧바름. 이 경우 첫 번째 색의 굳은 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한 뒤 두 번째 색을 올려야 터치의 겹침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색이 섞여 탁해짐을 방지하고 맑은 색감을 유지할 수 있다. 바람의 느낌을 좀 더 넣을 수 있다.</p>
	<p>송진가루 : 5 테라핀 : 5 비율. 진액의 끈적임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두께감이 표현되며 붓터치는 겹겹이 모두 표현된다. 흘러내림과 광택이 심하여 무게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p>

작업에 쓰이는 오일은 테라핀에 송진 가루를 7 : 3 비율로 섞은 뒤, 일주일 시간이 흐르면 희석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에 소량의 원하는 유화물감을 섞는다. 글로시 한 상태의 오일은 끈적임에 의해 붓 터치가 보여 공기의 흐름이나 바람의 세기를 의도할 수도 있고 뭉게 바르면 캔버스의 재질이 비취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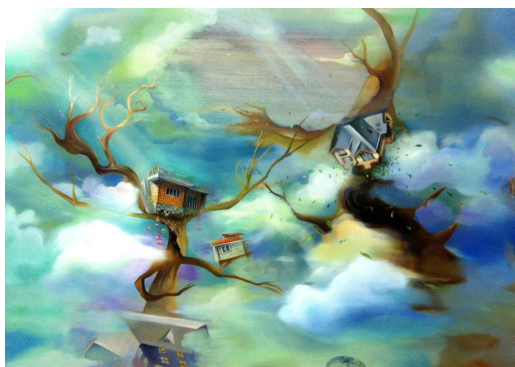
송진의 끈적임이 겹쳐 칠 하게 되면 붓 자국이 선명하게 표현되기에 빠른 시간 내에 우연을 통한 색변화를 잘 계산해서 발라줘야 한다. 배경을 다 칠한 뒤 마르는 여유시간을 (24~30시간) 두고 작업에 들어간다.



[작품 1, 2] 작품 과정.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1



[작품 3, 4] 작품 과정.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1



[작품 5, 6] 작품 과정.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1

지금까지 작품의 제목이자 주제인 Safe zone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집의 의미를 상기 시켰다. 표류하는 이미지로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하고자 동화적 배경에 담겨진 초 현실 세계의 공간의 표현방법을 찾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제작과정까지 알아보았다.

선행 작가들의 작업을 본인의 작업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필자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작업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았다.

IV. 작품 설명

오늘날의 가정을 개인의식이 팽배한 이기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작품 속에서 보여 지는 집은 뿌리가 뽑힌 채 표류하는 것처럼 보인다. 잃어버린 가족의 본질적 의미를 가진 Safe zone은 물리적 상태의 재현이나 만화적 상상력 만으로만 포장된 초현실주의 회화가 아닌 가족애의 회복이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심리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현실의 알레고리이다. 작품 안에서 뿌리가 뽑힌 채 나무 위 혹은 허공에 놓여진 집의 위태로운 모습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짓누르는 심리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두운 단면의 불안정한 모습이 표현된 것이다.

성장위주의 사회 속에서 콘크리트 섬(도시) 안에서 자연을 찾게 되는 나의 모습이 자연의 힘을 빌려 혹은 시멘트 건물에 떠밀려 모호한 공간위에 자신들의 안전지대(safe zone)를 형성하고 있는 듯이 나타났다.

나의 작업에서 집의 표상은 가족이 공동생활을 하는 집합체, 인간관계를 뜻하는 가정과 구체적인 건축물인 집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작품 7] I'm a little boy you're a little girl once upon a time.

72.7cm x 90.9cm. Oil on canvas, 2010

[작품 7] I'm a little boy you're a little girl once upon a time.

과거를 회상하며 가족 간의 소통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인식이 작품에서 보여 진다. 등장하는 집의 이미지는 때 묻지 않았던 유년시절의 살던 집의 형태로 80년대 벽돌집이 대부분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앞의 인물은 연약해 보이며 본인이 아버지의 모습이 다. 세상의 쓴맛과 단 맛을 경험하였지만 어른이 된 자식들에게 있어서 강인하면서도 나약한 존재이다.

살아감에 있어 소멸하는 존재와 생성하는 존재의 대비됨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형태의 추억을 담고 있는 작품의 제목은 <i'm a little boy you're a little girl once upon a time> 이다. 아버지의 모습과 라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유년기 모습은 AIR의 노래 “once upon a time” 에서 따온 제목으로 몽롱한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하다가 문득 너무나도 어울리는 가사라는 생각에 인용을 했다. 이 음악의 분위기와 이 부분의 가사는 작품의 의도와 닿아 있다.



[작품 8] Safe zone.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0

[작품 8] Safe zone.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0

집의 이미지와 동화적 환상의 배경이미지가 들어가게 된 작품이다.

구름의 형상은 눈(雪)과 이중적 이미지를 띄고 있다. 구름은 공기 중의 수분이 엉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허공에 가볍게 떠있어 집을 받쳐줄 수 없다. 그리고 이중적 이미지의 눈 이중적 눈 (雪)은 하얀 이미지와 더러움을 씻다 는 의미를 가진다. 눈 또한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로 몽롱한 이미지와 순수한 세계 속 불안정한 집과 대비되는 역할을 하여 디딜 곳 없는 현대인들의 불안정하게 지탱하려 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표현된다.



[작품 9] Safe zone.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1

[작품 9] Safe zone. 80.3 x 116.8cm. Oil on canvas. 2011

자신들의 safe zone을 형성하고자 올라간 하늘위의 모습이다. 나무는 현실과 이상 그 사이의 매개체이다. 구름과 흩날리는 나뭇잎은 몽환적 배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준다. 현대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잃은 현대인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각자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결국 가족애를 흔들고 사회적으로 소통의 단절을 초래했다.

이것은 마치 도심 속 나무위에 위태롭게 지어진 새둥지처럼 불안한 세계로 느껴진다.



[작품 10] Safe zone. 72.7 x 90.9. Oil on canvas. 2010

[작품 10] Safe zone. 72.7 x 90.9. Oil on canvas. 2010

하늘과 바다의 이중적 배경으로 표류하고 있는 집의 모습

현대사회에서 타인에게 쉽게 내 뺏는 말들로 인해 쉽게 상처받는 현대인들의 매 마른 행동과 감정들이 마치 우주에서 물건들이 중력을 잃고 허공인지 물인지 혼돈스러운 공간을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감정의 무중력 상태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어, 개인주의에 극심한 상처를 받은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을 집으로 의인화시켰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안정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들만의 안전지대 즉, <SAFE ZONE>을 찾아 표류하는 듯 표현한 것이다.



[작품11] Safe zone. 112.1cm x 193.9cm. Oil on canvas. 2011

[작품11] Safe zone. 112.1cm x 193.9cm. Oil on canvas. 2011

이 작품은 큰 사이즈의 작품으로 큰 붓을 사용해 가끔씩 끊어지는 구름의 애매모호한 경계로 하여금 확장되는 공간과 방향성을 느끼기 위해 의도되었다.

구름은 연기처럼 혹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고 나무는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톤 다운된 배경 그 자체는 몽환적인 분위기이지만 도시의 차가운 이미지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큰 나무들의 가지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두 팔 벌려 “도와주세요” 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작품 12] Safe zone. 112.1cm x 193.9cm. Oil on canvas. 2011

[작품 12] Safe zone. 112.1cm x 193.9cm. Oil on canvas. 2011

외부의 압박으로 반이 갈리고 파도와 구름의 이미지가 겹쳐져서 집을 어디론가 데려간다. 정착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은 여행을 하고 있는 집의 모습은 파도에 부서지고 휩쓸린다.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의 표현이다.



[작품 13] Safe zone. 35cm x 35cm. Oil on canvas. 2012



[작품 14] Safe zone. 35cm x 35cm. Oil on canvas. 2012

[작품 13] Safe zone. 35cm x 35cm. Oil on canvas. 2012

[작품 14] Safe zone. 35cm x 35cm. Oil on canvas. 2012

[그림 13, 14]앨범에서 꺼내든 나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소풍 갔던 기억의 사진을 배경으로 또 다른 세이프 존을 찾아 떠나가는 집들의 모습이 보인다. 유년기 본인을 포함한 자매가 좋아했던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혼란스러워지는 창밖의 상황을 모르고 행복해 하는 모습이다. 성장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진 주체의식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에 어린 시절의 모습은 작업 속에서 세계를 만드는 배경 같은 것이다. 아이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어릴 적 살던 집과 시골집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작품 15] Safe sone. 162.2cm x 130.3cm. Oil on canvas. 2012

[작품 15] Safe sone. 162.2cm x 130.3cm. Oil on canvas. 2012

수많은 단독 주택의 형태들을 한 가정집이 중력을 거스르며 하늘로 오르고 있다. 이것은 의지에 의한 모습이며, 더 높이 빨리 나의 안전지대(Safe zone)를 찾기 위해 바람을 타고 가는 모습 이다.

배경에서 보여 지는 세로 방향의 붓 터치가 공기의 흐름같이 느껴지나 좀 더 유동적인 과감한 방향성을 보여주었어도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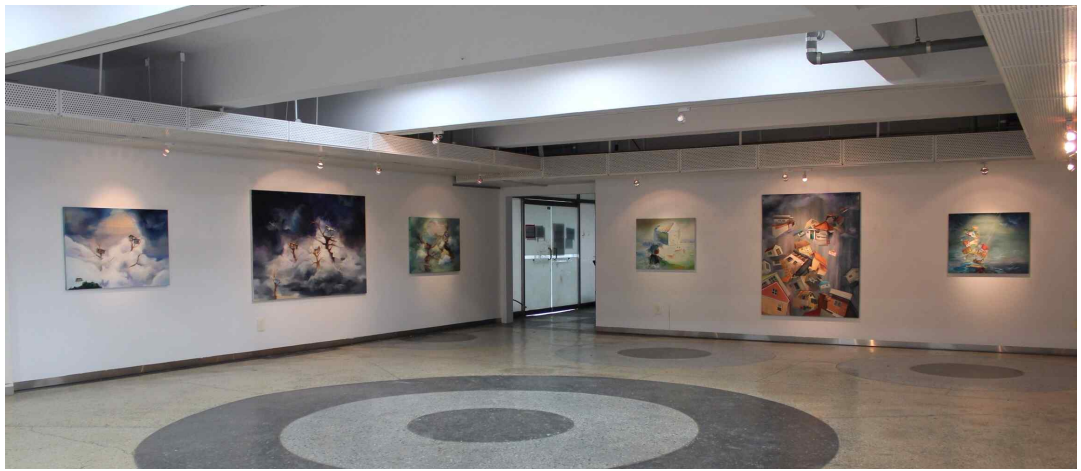


[작품 16] Safe zone. 116.8 x 80.3cm. Oil on canvas. 2011

[작품 16] Safe zone. 116.8 x 80.3cm. Oil on canvas. 2011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수직의 붉은 비는 평면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노력하는 과정이다. 입체감을 위해 붓 터치를 과감하게 위 아래로 놓으며 색의 변화를 주었다.

채워지지 않은 공간의 집은 아늑한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인다. 주인 없는 자전거, 주인 없는 수영장이 아늑은 외로워 보인다.



[작품 17, 18] 전시장면

IV. 결 론

현대인들은 정형화된 건조한 삶 속에서 점점 타인에 대해 무관심해 지고 있다. 진정한 소통은 이기심 혹은 사회의 질서에 길들여진 타성에 가려지고 있다.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폐는 단단한 인간 관계의 고리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 또한 소통 매체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져온 변화를 통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빠르고 넓은 소통이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 현대인의 타성과 무관심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슈들에 취약해져 지성에 근거한 판단 능력을 흐리고, 익명성 뒤에서 감정 없는 넓고 가벼운 관계를 맺는데 익숙해지는 부작용들이 관찰되고 있다.

가벼워진 관계 속에서 파편화된 개인들의 모습들은 이들이 속한 안락했던 공동체인 가정의 모습까지 바뀌어나가고 있다. 가정의 규모는 점점 줄어가고, 깨어지지 않을 듯 했던 핵가족조차 분열되어 1인 가구의 증가, 노인 고독사의 증가 등 따스했던 가정의 기능들은 상실되고 있다. 주체성의 상실로 스스로가 만든 불안감과 소외감 속에서 변해 버린 가정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집이 가진 의미와 잃어버린 감정적 교류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대해 관찰하였다.

집은 현대인에게 안식처이며 가정의 역할을 한다. 교육의 역할과 사회적 인 역할을 포함한 가정은 개인의 감성적 배움의 장소이다. 이곳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곳이다.

집은 서로를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며 진심에서 나온 소통은 개인의 주체성의 회복과 더불어 타인과의 의미 있는 소통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현대인의 심리적 병증들을 치유하는 것이

가족애의 회복, 나아가서 인간애의 회복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과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작품의 배경이 된 인간 내면의 문제와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안락한 공간의 가정을 “개인의식이 팽배한 이기적인 공간”으로 재구성 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 가정은 자연의 도움을 받아 안락한 장소인 Safe zone을 형성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집의 이미지는 유년시절의 추억이 담긴 형상 또는 실루엣을 통해 나타내었다. 또한 현대사회의 소통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잃어버린 가벼운 소통을 하고, 주체성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의 은유적 표현으로 나무나 구름 위에 살짝 엮혀지거나 파도에 휩쓸리고 어디론가 떠나는 표류하는 집의 모습들을 표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름과 눈, 파도와 구름 등의 자연적 이미지 틀 안에 존재하는 인공적 콘크리트 건물은 현시대의 우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모습으로 표현된 집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본인의 경험과 관련을 지어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하게 만든다. 또한 현실과 가상의 공간의 중간지점에서 이중적 이미지를 포함한 초현실적인 배경표현을 통해 무의식을 통한 꿈의 세계의 모호한 상황을 만들어 내며 관람자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생각한다.

본인의 Safe zone작업은 현대사회 속 본인의 문제를 포함하지만 현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품에 담겨진 인간의 이기주의적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환기시키고, 개인 각각의 존재의 의미와 타인의 대한 의식 확장을 통해 작품 제작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고 앞으로 본인의 작업에서 개인적인 경험의 확대와 확장된 사고를 갖추고 보다 깊이 있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길호, 김현지. (1995).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한나래
- 강영계. (2007). 강영계 교수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야기.
해냄출판사.
- 고충환. (2006).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 랜덤하우스중앙.
- 김용석. (2002). 깊이와 넓이 4막 16장. 휴머니스트.
- 김정리. 2003.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론. 학문사. 2003.
- 교양교재 편찬위원회. (2002). 선과자아. 동국대학교 출판부.
- 리사필립스. (2008). THE AMERICAN CENTURY 현대미술과 문화.
송미숙옮김. 지안출판사.
- 앙리베르그손. (2008). 물질과 기억 : 반복과 차이의 운동.
김재희옮김. 살림 출판사.
- 야코비.(1992). C.G. 융 심리학 해석,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 오병남 외. (2007). 미학으로 읽는 미술 미학강의 A에서 Q까지. 월간미술.
- 황순영. (2004). 마케팅의 비밀, 서울 : 법문사
- 계명대학교 철학연구소. 이진우 엮음. (1996).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
론. 서울: 문예출판사
- 정은영.신혜원, (2009), 부모와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세대의 부부적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5(3).
- 박혜인, 허경호. (2011) 한국형 소통 스타일 차원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 소통학회 학술저널
- 박미화. (2000). 루이스 부르주아 : 자유를 찾은 누에, 루이스 부르주아 :
기억의 공간. 서울국립 현대미술관. 9월

각주인용 도서

- 고충환, 『무서운 깊이와 아름다운 표면』, 랜덤하우스중앙, 2003
- 김용석, 『깊이와 넓이 4막 16장』, 휴머니스트, 2002
- 김정리,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론』, 학문사, 2003
- 교양교재 편찬위원회, 『선과자아』,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 야코비, 『C.G. 융 심리학 해석』,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1992
- 오병남 외, 『미학으로 읽는 미술 미학강의 A에서 Q까지』, 월간미술, 2007
- 황순영, 『마케팅의 비밀』, 서울 : 법문사, 2004
- 계명대학교 철학연구소. 이진우 엮음. (1996).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 정은영. 신혜원, 「부모와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세대의 부부 적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15(3), 2009

ABSTRACT

Safe zone as Communication – Focusing on the Personal Artworks –

CHOI, Yun-Young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s University

In this paper, we analyze motivations and inherent meanings of "Safe zone" which is a newly created utopian space for recovering our humanities and inherent meaning of family.

Historically, art have reflected artists' social background and perspective. A huge number of artists have tried to recognize surrounding social issues and represent the recognition in unique styles. Safe zone series are also originate from the author's viewpoint towards modern society.

Contemporary people live their monotonous lives with a sense of alienation and psychological anxiety, losing their own identities.

Due

to the family disorganization and prevalence of excessive egoism, individuals in modern society tend to be immature in communicating

their emotion with others. In other words, modern society is experiencing communication gap which stem from individual 's apathy

towards everything outside of their lives. This social malaise is infiltrating into our family. Egoism and immaturity of contemporary

people are making family relationships loosen more and more and even

nuclear family are being disorganized nowadays. I believe that we need

to restore family love to reunion our society overcoming the communication gap because family love play a critical role in one' s

communication capability, empathy towards others, and socialization.

This paper represents an utopian space, called Safe zone, where preserves archetype of family love. The author represents today's

houses as uncomfortable places where each family members'

egoism

conflict and she illustrated the idea with eradicated or drifting houses. Even though it seems as if the houses escape from reality and

settle in refuge called Safe zone, placed between reality and surreality, with bright and happy memories of families, they are supported by twigs unsafely or swept away by the waves. This unstable

appearance is a metaphor symbolizing pressure from reality suppressing

our hope towards utopia.

In her work, the houses are drifting. This is a reflection of the author' s unconsciousness that have quite interests in tales of adventure. To illustrate fluid such as wind and wave in surrealism

manner, she tried to represent texture of canvas with a variant of oil

painting technique. The drifting houses, illustrated in the way, are not just accurate interpretation of physical phenomenon or

surrealistic fantasy, but the allegory of unstable situation of modern

families.